

지역 소식 통

부안군의회, 제10대 의정
활동 시작...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21일 제3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을 함께 다지고 군민의 기대를 실천으로 이어가는 첫 회기”라며 “군민의 뜻을 의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 성과를 만들어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선 9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고창군은 민선 9기 공경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선거기간 불거졌던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내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이번 총량제 도입을 위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소수업체 편중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있는 참여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본청과 읍면을 통합하여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그 동안 계약내역을 분석해 긴급한 재난복구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음·면장을 대상회의 열어 세부적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 정착 위해 분기별로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낮엔 물놀이 · 밤엔 음악분수’

25일부터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운영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과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낮에는 물놀이를, 밤에는 음악분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시설 정비를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평일 오후 8시와 9시 등 하루 2차례 열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와 5시, 8시, 9시 등 하루 4차례 운영한다.

시는 노후한 분사구(노즐)와 배관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연 곡도 추가했다. 음악에 맞춘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분수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시설물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공연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거나 낙뢰·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도 공연을 중단할 수 있다. 운영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홍석조 시설운영과장은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가 일상에 지친 시민



들에게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도 같은 날인 25일 개장한다.

미로분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복합형 바닥분수 시설이다. 평소에는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로 경관을 연출하고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2

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시간 40분 동안 물놀이를 진행한 뒤 20분간 휴식한다.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는 미로분수의 음악분수 공연도 중단한다.

물놀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나무 물총놀이와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한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그늘막과 탈의실, 방방 헛터 등을 설치해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밤바다감성 · 낭만 ‘광광’

24일부터 변산비치파티 · 격포 오션 바이브 · 모항 비치 버스커스 등
변산 해수욕장 중심 해변별 특색 살린 야간 프로그램 운영 ‘풍성’

부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변산·격포·모항을 잇는 해변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는 ‘2026 변산 비치파티’가 매일 저녁 운영되고 격포해수욕장 광장에서는 ‘격포 오션 바이브’가 매일 밤 열리며 모항해수욕장 캠프존에서는 ‘모항 비치 버스커스’가 매주 목·금·토·일요일 저녁 시간에 운영된다.

군은 여름철 대표 관광자원인 변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낮뿐 아니라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변산 비치파티를 중심으로 해변별 특색을 살린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안의 여름밤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격포 오션 바이브와 모항 비치 버스

커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 관광 진흥도시 공모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2025 변산 비치럽’을 통해 야간 체류와 지역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 사업 범위를 격포와 모항까지 확대했다.

올해 해변 콘텐츠는 화려한 대형 행사보다 감성 조명과 버스킹 공연을 중심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여름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산 비치파티는 해변 공연과 버스킹, 비치럽이 어우러진 대표 해변 콘텐츠로 가족과 연인,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격포 오션 바이브는 DJ 공연과 라이브 퍼포먼스로 활기찬 분위기를, 모항 비치 버스커스는 어쿠스틱 공연과 감성 버스킹으로 편안한 해변 문화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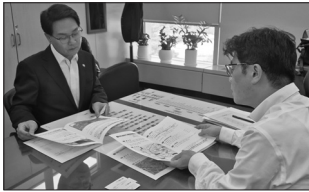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수, 국가예산 · 현안사업 확보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0일 오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사업과 핵심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우선 심 군수는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고창읍 우회도로(국도23호선) 개설공사(1798억원)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국도23호선은 신활력산업단지과 덕산지구 도시개발 구간을 관통하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이다.

해리 동호~금평간(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150억원)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7단계) 사업 반영’도 건의했다. 노을대교 건립과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으로 선제적인 선형개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24억원) 선정을 위한 예산규모 확대 및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 중인 만큼, 권역별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항우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북분자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 확충사업(117억원)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492억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군수,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실시

부안군은 방상운 부군수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직접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주의보 발효 등 무더위가 기세를 부릴 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 등 무

더위쉼터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상운 부군수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심한 오후 시간대(오후 2~5시) 야외 작업 자제 및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6 고창 학생 글로벌 진로탐색 연수’ 진행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관내 중학생 33명과 인솔 교사 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영국에서 ‘2026 고창 학생 글로벌 진로탐색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영국의 학문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한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학 중인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진로 탐색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주영한국교육원의 관심과 지원 아래 옥스퍼드 체니학교(Cheney School)를 방문해 ‘시간을



잇는 돌: 고창 고인돌과 영국 스톤헨지’를 주제로 현지 학생들과 특별한 학술·문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

고창 학생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와 독창성을 발표했고, 체니학교 학생들은 영국의 대표 거석 유적인 ‘스톤헨지’의 역

사와 특징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대영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 인류의 역사와 자연의 신비를 탐험했다. 영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의사당을 견학하는 등 영국의 역사, 사회,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황토현 농협,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정읍시는 21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황토현농협과 함께 두 번째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농촌 주민 300여 명이 현장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과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양방 진료와 안과·치과 검진, 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맞춤형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료봉사회 소속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내과 진료와 약국 상담을 진행했다. 민성 통증 완화

를 위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시력검

사, 돋보기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